

# 거란이 고려 침공하는 배경과 강동 6주

신민식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 <목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6주의 경제, 군사학적 가치
- IV. 거란의 1~6차 침공의 배경
- V. 결론

## 【연구요약】

강동 6주의 역사 지리적인 위치가 한반도 안에 있다는 설과 요하 근처 수계에 있다는 만주설의 사료들이 있다. 역사 지리적인 고찰로 문헌상 6주의 위치를 설명하는 만주설과 한반도설의 자료가 각각 있기에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강동 6주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경합설에서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를 분석하여 역사 지리적인 접근에서 생기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거란이 2차에서 6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 6주를 차지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군사 전략적인 중요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군사의 피해와 전쟁 비용이 들어도 거란이 6차까지 계속 침공한 근본 목적은 6주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쟁의 막대한 비용과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6주 땅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란이 6차례나 고려를 침공한 것이다. 그래서 거란이 차지하고자 했던 6주의 경제적, 군사적인 가치를 이해하면서 거란의 고려 침공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강동 6주, 요동반도, 묘도군도, 거란 침공, 6주의 경제적 가치.

# I. 강동 6주 선행연구와 방법

## 1. 강동 6주 선행연구 검토

현재 국사 교과서에서는 강동 6주를 한반도 압록강 이남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서술은 조선 실학자들이 서술한 사료를 바탕으로<sup>2)</sup>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 1530년에 조선 전기 문신인 이행, 윤은보 등이 편찬한 지리서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강동 6주에 대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설명하는 6주 위치

6 州	위치 설명
철주(鐵州)	鐵山郡인데 본래 고려의 長寧縣인데 일명 銅山이라 한다.
용주(龍州)	龍川郡으로서 북쪽으로 의주의 경계까지 19리. 남쪽은 鐵山郡 경계까지 22리이며, 본래 고려의 安興郡 이었는데 현종 5년에 龍州 防禦使 고을로 일컬었으며, 古龍州가 군의 서쪽 20리에 있다고 한다.
귀주(龜州)	龜城으로서 龜城都護府는 본래 고려의 萬年郡이었는데, 성종 13년 평장사 徐熙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성을 쌓아서 龜州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통주(通州)	通州는 宣川으로서 宣川郡은 본래 安化郡이었는데, 고려 초기에 通州라고 고쳤고, 현종 21년에 宣州 防禦使 고을이라 일컬었으며, 군의 북쪽 62리에 東林城이 있는데 곧 옛 宣州城이라고 하였다.
곽주(郭州)	곽산으로서 본래 고려의 장리현이었는데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희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성을 쌓게 하고서 곽주라 이름지었다고 하였다.
흥주(興州)	義州의 남쪽 55리에 있는 古靈州가 고려의 興化鎭이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볼 때 역사학계에서는 현재 한반도 내로 고착화가 된 함

- 1) 김태웅 외, 『중학교 역사 2』, 미래엔, 2019, 93쪽; 박근칠 외, 『중학교 역사 부도』, 지학사, 2018, 85쪽; 이병인 외, 『고등학교 역사부도』, 비상, 2017, 17쪽; 이우태 외, 『중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 2017, 88쪽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3, 83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역사부도』, 미래엔, 2017, 30쪽.
- 2) 홍언필의 『新增東國輿地勝覽』; 안정복의 『東史綱目』; 한치윤의 『海東繹史』; 정약용의 『我邦疆域考』에서 서희가 개척한 6주는 평안도 지역이라 서술하고 있다.

경도와 평안도 지명으로 해석하여 강동 6주를 한반도 이남으로 이해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나오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명은 한반도 지명이 아닌 바로 공한지(空閑地) 정책에 의해서 만주에서 한반도 내로 행정 치소가 옮기기 이전이고, 그 시기의 지명은 만주에 있었던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1500년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살필 때는 반드시 공한지(空閑地) 정책에 의해서 행정 치소가 옮겼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공한지 정책은 조선이 청나라와 국경의 분쟁을 피하고자 국경에 있는 지역에서 백성들을 옮기고 행정 치소를 옮기는 정책을 공한지 정책이라고 한다.

조선에서 청나라와 분쟁이 있는 국경지대에 공한지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백성들이 살던 땅을 비우는 이런 공한지 정책은 결국은 조선 영토를 침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공한지 정책에 따라 17세기 후반에 평안도와 함경도 국경지대 백성들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백성들의 이동과 더불어 행정 치소를 한반도 안으로 이동한 결과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대부 실학자조차 조선 영토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 즉, 공한지 정책에 의해 행정 치소를 만주에서 한반도 내로 옮겨진 이후에는 만주 땅에 있었던 우리나라 함경도, 평안도 영토를 인식하지 못했다.

청나라는 만주 지역을 봉쇄하고 조선의 행정 치소를 한반도 안으로 밀어낸 이후부터 만주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국적인 힘으로 압박하여 억지를 부려 조선의 형태를 현재의 백두산까지 밀어냈다.<sup>3)</sup>

그 결과 함경도와 평안도를 지금의 한반도 땅 이내의 경계로만 생각하고 그 너머의 경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여러 지도에서 보이는 평안도 행정 구역들의 위치는 모두 한반도 압록강 안쪽으로 표시됐다. 이것은 지도제작자나, 실학자들이 공한지 정책에 의해서 행정 치소가 바뀐 것을 모르고 또한 오래된 고지도나, 사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더욱 고착화가 된 것은 대일 항쟁기 때 반도 사관에 의해 만주의 모든 지명을 한반도 내로 설명하려는 식민사학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공한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화도의 개간과 경작이다. 현재 압록강 위쪽 봉황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위화도는 원래는 조선의 넓은 옥토였다. 하지만 위화도가 공한지 정책으로 농경지로 금지가 되었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군량과 거주민 정착을 위해서 경작 허용을 놓고 논의가 분분한 곳이다. 위화도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을 살펴봐도 조선 후기 지도들과는 다르게 압록강 위쪽까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또한 몇몇 사서들은 6주의 위치를 압록강 이남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려와 직접 싸운 거란의 『遼史』는 6주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遼史』에 따르면, 철주(鐵州)는 동산(銅山)의 남쪽에 시하(柴河), 북쪽에 청하(淸河), 서쪽

3) 허우범, 『대동지지』 ‘평안도 청북’의 위치로 살펴본 19세기 조선의 서북계, 『인문과학연구』69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104~114쪽.

4) 허우범, 「위화도의 위치 재고찰」, 『인문과학연구』62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217~259쪽.

에 요하(遼河)가 위치한다고 한다.<sup>5)</sup>

『盛京疆域考』는 고려 동산현지(高麗銅山懸地)가 금나라 상경로 함평부로, 요나라에서 금나라 초기까지 함주라 불리며 범하(范河), 시하(柴河) 사이에 있었다고 기술한다.<sup>6)</sup> 요나라 함주(咸州)는 철령(鐵嶺)과 개원(開原) 두 현 지경에 있었다고 하며, 이는 요하 동쪽 지역이다.

통주(通州)는 『고려사』에 宣州[宣川]로 기록되어 있고, 『遼史』에서는 동주(銅州)라고도 불린다. 거란은 동주의 서쪽, 세 강물이 모이는 삼수지회(三水之會)에서 고려장수 강조와 전투를 벌였다. 그런데 현재 강동 6주설을 따르는 한반도 이북 선천[통주] 서쪽에는 세 강물이 모이는 지역이 없지만, 요하 수계에는 존재한다.<sup>7)</sup> 요하, 청하, 사하가 합쳐지는 지역에는 평정보진(平頂堡鎭)과 중고진(中固鎭)이 위치한다.

『고려사』에는 광주(郭州)가 고려의 장리현(長利縣)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를 『遼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진인이 거란의 성종에게 설명한 광주의 위치는 “압록강을 건너 大河를 따라 올라가면 광주에 도달한다”로 기술되어 있다.<sup>8)</sup> 이는 고려 침공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 설명이었다. 만약 강동 6주 설을 따라 압록강 이남이 광주의 위치라고 한다면, 위 설명은 모순이 된다. 이는 강동 6주의 한반도설을 반박하는 자료이다.

## 2. 경제 지리적인 연구 방법

현재 압록강이 아니고 요하라고 하는 사료와 논문이 나오면서 강동 6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에 문헌적 고찰만으로는 강동 6주가 한반도에 있는지 아니면 만주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사 지리적인 문헌 고찰이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지명이 시대별 다양한 호칭이 불린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 문헌에 따라 같은 지명이 다르게 호칭 되고,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역사 지리 고찰에 어려움을 준다.

두 번째로 역사 사료에서 문헌에서 지명의 주변 환경이나 산맥, 강 등이 자세히 기술되지 않고 또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 서술자의 주관적인 서술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지명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문헌상 강동 6주의 한반도설과 만주설 각각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존재하여 어느 한 학설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헌 고찰을 통한 역사 지리적인 방법 외에 거란이 왜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했는지 그 원인을 경제적, 군사적 측

5) 『遼史』卷 24 志 第5

銅山遼同州鎮安軍，本漢襄平縣，遼太祖時以東平寨置，因名東平，軍曰鎮東。章宗大定二十九年，以與東平重，故更。南有柴河，北有清河，西有遼河。

6) 남주성, 「서희 개척 8주의 위치에 대한 재고찰」, 『압록(鴨綠)과 고려의 북계』, (서울:주류성, 2017), 166~167쪽.

7) 신민식, 「고려 서북계 지리적 위치에 관한 융합적 고찰」, 인하대 융합고고학 박사논문, 2024, 60~62쪽.

8) 신민식(2024). 70~71쪽.

면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6주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판단하는 융합적인 고찰을 통해 6주가 한반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요하 주변 지역인 고려 서북계 지역인지에 대한 서로 경합하는 학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지리를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것을 ‘경제 지리학적’ 관점이라고 한다. 경제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특정 지역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과 과정을 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거란이 지속적으로 6주를 차지하려고 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 지리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강동 6주가 1~6차 침공을 하는 배경으로 어떠한 경제적, 군사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 II. 강동 6주의 경제, 군사학적 가치

### 1.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요동반도와 요도군도

거란의 고려 침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강동 6주의 역사 지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강동 6주 지리의 경제성과 군사적인 가치를 통한 분석에서도 찾아야 한다. 지역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지리학을 ‘경제 지리학’이라 하며 거란의 2~6차 침략의 배경은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다는 것이 경제 지리학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강동 6주를 차지하기 위한 거란의 6차 침공의 배경을 알 수 있고 또한 강동 6주의 한반도설과 만주설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있다. 강동 6주의 만주설로 보면 요하 주변에 있는 강동 6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요동반도로 내려가는 입구에 해당하기에 강동 6주를 점령하는 것은 요동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연구 방법인 경제 지리학적인 면으로 역사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압록강(鴨綠江)인 요하 지역인 요동반도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겠다.

#### 1) 요동반도에서 생산되는 곡물, 소금, 철

거란의 태종에게 보고하는 야율우지는, 요하 수계(水系)인 양수(梁水)<sup>9)</sup> 주변의 비옥한 토지와 요동반도에서 목재, 쇠, 소금, 생선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sup>10)</sup>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요동반도와 요하 주변 지역은 거란에게 매력적

9) 태자하를 말한다: 『遼史』 卷38 志 第8

遼河出東北山口為範河，西南流為大口，入於海；東梁河自東山西流，與渾河合為小口，會遼河入於海，又名太子河，亦曰大梁水

10) 김위헌 외, 『국역遼史』 下, (경기도:단국대학교, 2012), 233쪽: “양수(梁水)지역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토지가 넓고 평탄하며 비옥하고 목재와 쇠, 소금, 생선들을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梁水之地乃其故鄉，地衍土沃，有木鐵鹽魚之利)”라고 하였다.

인 지역이기에 거란은 이를 노리지 않을 수 없다. 평지인 요하 근처의 땅들은 천혜의 곡물 창고로, 콩, 수수, 조, 밀과 같은 다양한 곡물을 생산할 수 있고 습지가 있는 요하 주변 지역은 수수 재배에 적합한 곳으로, 농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중국 동북 지역은 수수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내건성이 뛰어나고 홍수나 습지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량이 1무<sup>11)</sup>에 480근~720근 정도 추수할 수 있다. 즉, 콩, 수수, 조, 밀 같은 곡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요하 근처의 평지는 천혜의 곡물 창고이기에 거란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바로 요동반도를 포함한 요하 주변 지역이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자연 자원은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력은 이 자원에 크게 의존한다.<sup>12)</sup> 이 중에서도 식량은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며, 천연자원 중에서는 소금과 철이 중요하다. 압록강 이남 지역은 식량 생산에 있어 요하 주변의 평야에 비해 면적과 생산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산맥이 70% 이상인 지형 때문이다. 요하 주변 평야에서 나오는 농산물 역시 국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전쟁 시 군수 물자로 활용될 수 있고 철과 소금은 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의 함량이 많은 돌산으로 알려진 철주는 '동산(銅山)'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으며<sup>13)</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령과 개원 사이에 있다. 그리고 요동반도의 본계와 안산 지역은 중국의 유명한 철강회사가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강이 2020년 현재 약 5,555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한다.<sup>14)</sup> 요동반도는 현재도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 곳이자, 중세 고려시대에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거란이 고려를 6차 침공한 것은 강동 6주 지역의 경제적 이점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철과 구리 생산은 군사력 증진에 중요하므로 서북계 6주 지역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다. 경제적, 군사 전략적 이점을 가진 요동반도를 포함한 강동 6주는 고려 국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거란이 제국을 유지하고 건설하는데 필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고려와 거란 간의 6차 전쟁이 발발했다.

동북 지역에 요동도지휘사와 노아간도사를 설치한 명나라는 그 아래로 8개의 위를 설치했다. 이들은 금주위, 복주위, 개주위, 해주위, 광녕중둔위, 광녕우둔위, 광녕전둔위, 녕원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전은 총 12개가 있다.<sup>15)</sup> 영구 지역에 있는 개주위에는 3곳의 염전이 있으며, 이는 요동 연해 염전 총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염장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요동반도의 영구지역은 192리의 해안선을 갖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평탄한 지세로 바닷물에 장기간 잠겨 염분이 풍부한 토양이 형성되

11) 1무(畝)는 이랑 전답의 단위로 옛날에는 걸음으로[步] 사방 100보 걸음의 면적이다.

대략 667평이다.

12) 한스 모겐소, 이호재, 엄태암 옮김, 『국가 간의 정치』, (경기도:김영사, 2021), 308쪽.

13) 『高麗史』卷5 志 第12, 地理三 北界

安北大都護府領主, 鐵州本高麗長寧縣【一云銅山】. 顯宗九年, 稱鐵州防禦使.

14) 김영란, 철강금속 신문, 2021.08.20.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457>

15) 蓋州衛: 北有平山, 其下有鹽場, 西北梁房口有鹽場, 西有鹽場, 複州衛: 西瀕海, 西有鹽場, 金州衛: 東北有鹽場, 廣寧中屯衛: 東北有鹽場, 廣寧右屯衛: 南有鹽場, 廣寧前屯衛: 東南為山口嶼, 有鹽場, 寧遠衛: 南有鹽場, 海州衛: 西南濱海, 有鹽場, 東有大片嶺關, 有鹽場.

었다. 봄과 가을의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맑은 날씨, 그리고 적은 강수량은 영구지역을 해염 생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든다. 또한 영구 동쪽의 무성한 삼림은 해염(海鹽)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sup>16)</sup> 『明經世文編』卷 358에 기록된 생산량으로 명무종정덕년간(明武宗正德年間)에 요동지역 각 위(衛)가 생산한 소금의 총량은 3,774,713근이다.

## 2) 장백산과 요양 동쪽 산맥에서 채취하는 高麗人蔘[山蔘]

고구려나 고려 때 산에서 자생했던 산삼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인삼은 재배삼인 가삼(家蔘)으로, 이는 산에서 채취한 고려인삼[산삼]이 아니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인삼은 허증이 있는 남녀에게 유익하고 신체 허약과 오장육부 기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저항력을 높여주며, 출산 전후 질병, 객혈, 혈뇨, 자궁과 대장 출혈 등에도 효과적이다.<sup>17)</sup> 인삼은 상약으로 분류되어, 독성이 없고 오래 먹어도 해가 없는 약으로 여겨진다.<sup>18)</sup>

원래 인삼은 자연에서 자생하여 산삼으로 불리고, 재배하는 가삼과 구분되었다. 그런데 산삼의 과도한 채취로 인해 재배삼인 가삼이 등장했다. 자연 산삼이 아닌 재배삼인 가삼(家蔘)이 출현한 시점으로 ‘여말 조선 초기설’, ‘조선 중기설’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풍기, 화순이 재배 시원지라는 설이 있다.<sup>19)</sup>

원나라로부터 인삼의 조공 요구가 심해져 자연 산삼으로 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여말 조선 초기설이고, 조선 중기 설은 중국과의 교역과 조공으로 인해서 산삼 채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산양삼(山養蔘) 재배가 시도되었다, 이후 농가에서의 가삼 재배로 확대되었으며, 인삼의 재배법은 1800년대 초반에 확립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조선 인삼의 재배법을 기록한 문헌이 있다.<sup>20)</sup>

인삼을 '장백산의 보배'라고 칭한 건륭제는 이를 청나라 황실의 신성한 발상지인 장백산에서 모인 왕기로 인해 생긴 것으로 여겼다. 여진족의 영역을 백산과 흑수로 설명한 『금사』에 따르면, 흑수는 현재 흑룡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과 남쪽의 장백산 지역에서 자라는 인삼(산삼)과 요양 동쪽의 요동삼은 매우 우수한 삼으로 인식되었다. 여진 부락은 명시기에 야인여진(동해여진), 해서여진, 건주여진으로 구분되었다. 청나라를 건국한 태조 누르하치의 조상인 건주여진은 요하 동쪽의 소자하, 혼하, 파저강 및 장백산 일대 요동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서 주로 진주와 인삼을 채집하고 수렵과 농경을 혼합한 생활을 영위했다.<sup>21)</sup>

16) 杨强, 『北洋之利-古代渤海区域的海洋经济』, 江西高校出版社, 2005, 196쪽

17) 한국인삼연구초연구원, 『고려인삼』, 천일인쇄소, 1993, 80~100쪽.

18) 한국인삼연구초연구원(1993), 100쪽.

19) 박이성, 「고려인삼의 유래 및 효능의 서지학적 고찰」, 인삼문화, 2019, 46~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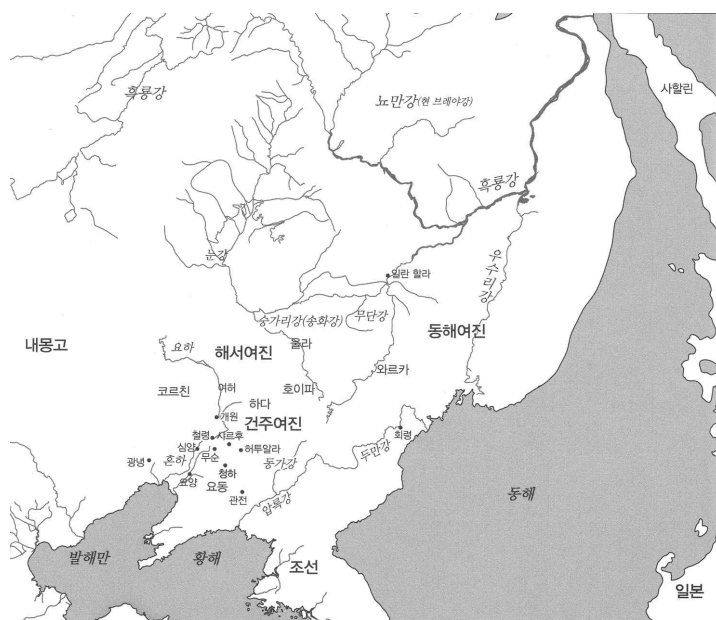
20) 1827년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집요지(林園經濟十六志)』에 인삼재배법이 수록됨으로 1800년 초반에 인삼의 재배법이 확립됐다고 본다. 조선 인삼을 일본에서 재배하는 방법을 서술한 '사카오에 노보루'가 1764년 저술한 『조선인삼경작기(朝鮮人蔘耕作機)』가 있다. 이 책에서 조선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양, 해충박멸, 재배법이 소개되었다.

21) 김선민, 「만주족과 인삼」, 인삼문화, 2019, 17쪽.

사조제는 『오잡초』에서 '요동삼이 가장 좋다'고 언급했고, 청대 시인이자 산문가인 원규생은 『다여객화』에서 요양 동쪽의 산중에서 많이 자라는 인삼[산삼]의 특별함을 언급하며, 이 지역의 특별한 기운으로 인해 인삼과 같은 귀중한 물건이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요동지역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품인 인삼[산삼]이 나는 성스러운 지역이며 이러한 인식은 삼국시기, 고구려, 고려까지 내려왔으며 이런 지역을 거란은 그토록 뺏으려고 고려를 침공했으면 고려 또한 이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이다.

요동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에 관한 내용이 『高麗圖經』에 나온다.

〈고려에는〉 인삼[人參之幹]이 특별히 나는데, 어느 지방에나 있지만 春州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인삼에는 생삼(生蔘)과 숙삼(熟蔘) 두 가지가 있다. 생삼은 색이 희고 허(虛)하여 약에 넣으면 그 맛이 온전하나 여름이 지나면 즙이 슬어 상하게 되니 끓는 솔으로 익힌[孰] 것으로 오래 둘 수 있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그 모양이 납작한 것은 고려 사람이 돌로 눌러서 즙을 짜내고 삶았기[煎] 때문이라 하는데, 이제 물어보니 그것은 아니다. 숙삼을 벽돌처럼 쌓아 두어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삶아[煎] 만드는 것에도 적당한 방법이 있다.<sup>22)</sup>



<그림 1> 명시기에 고려인삼[산삼] 채취를 한 건주여진의 영역<sup>23)</sup>

22) 『高麗圖經』卷23 雜俗2 土產

人參之幹特生，在在有之，春州者最良。亦有生孰二等。生者，色白而虛，入藥則味全，然而涉夏則損蠹，不若經湯釜而孰者可久留。舊傳形匾者，謂麗人，以石壓去汁作煎，今詢之非也。乃參之孰者，積燥而致爾。其作煎當自有法也。

23) 김선민(2019), 15쪽.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하 동쪽 요동의 산맥에서 고려 인삼을 채취하는 권한은 고려로부터 점차 상실되었다. 1644년, 누르하치가 이끄는 건주 여진족이 주축이 된 금나라가 중원을 정복하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만주 인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다. 17세기 말까지, 만주에서 나는 인삼은 청나라 팔기군의 통제하에 있었다.<sup>24)</sup>

재배삼보다 효능이 월등히 뛰어난 자연에서 채취한 고려인삼은 송, 거란, 명, 청, 원 등 주변 국가에서 건강과 수명 연장에 탁월한 선약으로 여겨져 왕실과 권력자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삼[산삼]에 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도표 2> 여러 사서에서 언급되는 고려인삼에 관한 중요 사료

출 처	번 역 문
1.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효성왕 3년(739) <당나라 사신> 형숙(邢曷)에게 황금 30냥, 베 50필, 인삼 100근을 주었다. <sup>25)</sup>
2. 『三國史記』 卷 제11 新羅本紀11	9년(869) 가을 7월에 왕자인 소관 김운(金胤)을 당나라에 보내 은혜에 감사하였다. 아울러 말 두 필과 밀기울처럼 작은 알갱이의 금[麤金] 100냥과 은 200냥, 우황(牛黃) 15냥, 인삼 100근, 큰 꽃무늬 어아금(魚牙錦) 10필(중략)등을 받들어 진상하였다. <sup>26)</sup>
3. 『高麗史』 卷9 世家 卷第9	文宗 34年(1080) 가을 7월 계해 유홍(柳洪)등이 송(宋)에서 돌아왔는데, 송 황제가 칙서(勅書) 8통[道]을 보내왔다. “진상한 물품을 살펴보니, (중략) 생중포(生中布) 2,000필, 삼(蔘) 1,000근, 송자(松子) 2,200근을 잘 받았다.” <sup>27)</sup>
4. 『高麗史節要』 卷18	元宗 九年(1268) 몽고(蒙古)가 병부시랑 흑적(黑的)과 예부시랑 은홍(殷弘) 등을 보내와 조서를 내리기를 (중략) 유체인삼(有體人蔘)과 영동군(永洞郡)의 향국자(香麴子)와 남해도(南海島)의 실모송(失母松)과 금강산(金剛山)의 석즙(石蕈)·관음송상수(觀音松上水)·풍면송엽(風眠松葉)을 찾았다.

24) 김선민(2019), 12~14쪽.

25) 『三國史記』卷第9 新羅本紀 第9 孝成王  
賜邢曷黃金三十兩·布五十四·人蔘一百斤.

26) 『三國史記』 卷 제11 新羅本紀11  
九年, 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 入唐謝恩兼進奉馬二匹·麤金一百兩·銀二百兩·牛黃十五兩·人蔘一百斤·大花魚牙錦一十四

출 처	번 역 문
5. 『高麗史』 卷31 世家 卷第31	忠烈王 23年(1297) 11월 무인 상장군 김연수(金延壽)를 원에 파견하여 인삼과 탐라의 수유(酥油)를 바쳤다. <sup>28)</sup>
6. 『高麗史』 卷46 世家 卷第46	恭讓王 4年(1392) 영복군(永福君) 왕격, 찬성사 권중화를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사은하게 하였다. (중략)인삼 60근, 표피(豹皮) 10령, 안장 4면, 말 10필을 <明>에 바쳤다. <sup>29)</sup>

1번과 2번의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 신라에서 산에서 채취된 산삼은 당나라에 바치는 조공품 중 하나였다. 반면, 국력이 강한 고구려는 당나라에 조공을 바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인삼을 바쳤다는 기록은 없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요동에서 산삼이 채취되었고 요동에서 채취되는 산삼의 유명세로 인해 '고려[고구려]인삼'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3번 사료에서 고려는 송과의 무역에서 고려인삼 1,000근을 보냈으며, 원나라에서는 인삼[유체인삼: 有體人蔘]을 바치도록 요구했다. 몽골 황실 또한 고려인삼의 효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려인삼에 관한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 모습을 한 인삼이라는 단서까지 붙였다.

4, 5, 6번 사료에서 송나라하고는 무역으로 거래된 고려인삼이 고려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원나라에 바치는 조공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조선에 들어와 명나라에 바친 고려인삼의 양이 60근으로 줄어든 것은 산삼 채취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결과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 산삼 채취가 어려워지고, 재배삼인 가삼의 형태가 생겨났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요동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은 송나라와 거란 황실에게 필수적인 건강과 수명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었으며, 이 때문에 거란은 요동반도에 관한 야욕을 감출 수가 없었다.

## 2. 요동과 산동을 연결하는 묘도군도[북선향로]의 경제, 군사적 가치

### 1) 묘도군도의 해상 향로

27) 『高麗史』 卷9 世家 卷第9

秋七月 癸亥 柳洪等還自宋, 帝附勅八道.(중략) “省所上進, 生中布二千匹·蔘一千斤·松子二千二百斤”

28) 『高麗史』 卷31 世家 卷第31

十一月 戊寅 遣上將軍金延壽如元, 獻人蔘, 及耽羅酥油.

29) 『高麗史』 卷46 世家 卷第46

辛未 遣永福君昞, 贊成事權仲和如京師, 謝恩. 人蔘六十觔, 豹皮十領, 鞍子四面, 馬十匹.

C자형 구조를 가진 발해만은 발해연안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여겨진다. 요동반도를 거쳐 묘도군도라는 작은 섬들이 촘촘히 연결되는 해상로를 통해 중국의 산둥반도에 접근하기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 봉래와 대련 사이에 위치한 묘도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발해만의 내부 지역은 풍속이 적고 해상 수산물을 잡기에 적합한 전략적 지형을 갖추고 있다. 묘도군도 바깥쪽의 중국 중부 연안 지역과 한반도 황해는 중세 항해술로는 어류를 잡기 어려운 날씨 변화가 심한 지형이다. 중세의 해상 네트워크는 고대에 주로 근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육지에 위치한 요충지와 무역거점의 확보는 해상 제해권과 무역로의 핵심 요소였다. 중세 시대에 발달하지 않은 항해술로도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편리한 해상교통 수단이었던 C 발해만 동쪽의 요동반도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송나라 등주로 가는 북선향로 지름길은 중요한 해상 경로였다.

대련과 등주 사이 묘도군도를 중심으로 발해만은 바람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해상교통으로 활용하였다.<sup>30)</sup> C자 형태의 발해만에 위치한 요동반도, 산둥반도로 향하는 묘도군도의 지름길을 통제하는 자는 국력과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아래 그림은 대련에서 시작하여 묘도군도를 지나 등주까지 이어지는 해상루트이다. 아래 그림의 해상로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의 가장 짧고 평온한 바닷길로서 중세 시대의 바람과 해류만으로 항해하는 항해술로도 안정적인 바닷길이다.



<그림 2> 등주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대련까지 가는 약 120km의 안전한 북선향로<sup>31)</sup>

30) 남창희, 이인숙, 「환발해만 제해권과 고대 동북아 국제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15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3~7쪽.

31) 등주에서 묘도군도 지나 대련까지 가는 거리를 구글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20km의 북선향로 海路이다.

2) 묘도군도를 통해 요동반도로 가는 북선향로와 서로(西路), 남로(南路)

고대 동북아시아의 해상 교역과 향로는 북로(北路)와 서로(西路), 남로(南路)로 구분할 수가 있다. 북로는 요하 지역을 거쳐 묘도군도로 가는 향로이고 서로는 서해안을 통해 가고, 남로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송나라 명주로 가는 향로로 나뉜다.

대련이나 영구항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등주로 가는 향로를 '북선향로 A'라고 하고, 서해안을 통해 가는 향로를 '서해 향로 B', 전라남도에서 송나라 명주로 가는 향로를 '남선향로 C'라고 부르겠다. 이 중 B 향로와 C 향로는 A 향로보다 항해가 더 어렵다.



<그림 3> 무역 향로인 A 북선향로, B 서해 향로와 C 남해 향로<sup>32)</sup>

대련에서 등주까지 가는 북로 A[A1, A2]는 요하 남부 지역의 가장 안전한 향로로 알려져 있다. 서해안의 용진군에서 산둥반도의 등주로 가는 북로 B는 대련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등주까지 가는 북로 A보다 풍랑에 더 취약하고 배가 파손될 확률이 높은 향로이다. 거란과의 국경분쟁으로 요동반도가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안전한 북로 A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고려 중기 이후에 개발된 나루는 황해도 개봉군 예성강 하류의 벽란도(碧瀾渡)에 위치한다.

국제 교역의 중심 향로로 활용된 이유는 강의 수심이 깊어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수도 개경과의 근접성 때문이다. A 향로에 비해 황해도 예성강 하류의 북선

32) 요동반도에서 묘도군도로 가는 海路인 北路와 서해안을 통해서 가는 西路의 海路和 전라남도 지역에서 명주로 가는 海路인 南路를 그린 그림이다.

B 항로는 더 어려운 경로다.

고려 초부터 민간 무역으로 항로를 통해 무역하는 것이 많아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송나라와의 민간 무역을 금지하고, 사신단과 함께 무역 사절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고려는 개인 상인의 무역을 엄격히 금지했다.<sup>33)</sup> 조선사의 사료에 따르면,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은 해로를 통해 송나라와 무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용한 항로는 북선향로인 A 항로라고 본다. 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려의 북변에 가까운 지방의 부족으로서는 회동(會同) 3, 4년(고려 태조 23, 24년) 사이에 '압록강(鴨綠江)의 여진'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친 일이 있지만 그 관계가 영속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송의 건국 초부터(고려 광종 중기 이후) 거듭 중국에 조공한 '여진'은 海路를 이용하기에 편리했던 동일 방면(압록강)의 부족이었던 것 같다.<sup>34)</sup>

사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압록강에 살던 여진족이 송에 공물을 바칠 때 육로를 사용하지 않고 해로를 활용하였다는 내용이다. 해로를 사용했다면 등주로 도착하는 A 해로가 가장 단거리이면서 해상의 풍랑 없이 갈 수 있는 항로이다.

두 번째로 거주하는 압록강을 '푸를 녹[綠]'의 鴨綠江이 아니라 '말을 녹[綠]'의 鴨綠江으로 서술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遼史』에서 언급된 압록강(鴨綠江)이 요하라고 보면, 요하 근처에서 말을 사육한 여진족이 요하 남쪽의 영구 항부터 묘도군도를 지나 등주로 가는 북선향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한반도의 압록강(鴨綠江)에서 말의 목축을 하더라도, 송나라 산둥반도의 등주(登州)까지 갈 수 있게 말을 거래하려 가려면, 안전한 북로 A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압록강에서 대련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에 북로 A를 통해 등주(登州)로 가는 것인데 북한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가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장거리이다. 또한 산둥반도로 가는 A 북로는 묘도군도를 경유해 안전하고 항해하기 쉬우나, 서해안의 웅진군을 경유하는 B 북로는 A 항로에 비해 풍랑이 심해 항상 파손 위험을 안고 항해할 수밖에 없다. 이로 볼 때 등주로 가는 쉬운 압록강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요하(遼河)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원, 청으로부터 요하 지역의 점유권을 점차 상실한 고려의 후기 때는 A 북로가 막히면서 B 서로를 통해 무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진족이 압록강에서 기른 말을 송나라가 구매하는 경우, 이는 등주에서 이루어졌으며, 여진은 송 진종 시기에 연간 만 필의 말을 공급하였다.<sup>35)</sup>

33) 민간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라면 큰 범선이 아니고 적당히 큰 배로서 항로를 한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배로 B항로나 C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4)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자료,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 5, 2쪽.

35) 『續資治通鑑長編』卷51, 眞宗 咸平 5年(1002) 3月 癸亥, 舊日 女眞賣馬 歲不下萬匹 今已爲契丹所隔.

거란은 강동 6주는 요동반도와 요하 남쪽 발해만 연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고려되었다. 요하 근처의 강동 6주를 점령하면 송나라 배후를 군사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동 6주와 요동반도는 거란에게 안전하고 용이한 해로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북선향로의 묘도군도를 통해 산동반도에 지름길로 상륙하여 송나라의 직접 후방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초기 송 시대에는 등주에 고려 사신을 접견하는 관리가 있었으며, 신종 시대 이후에는 명주에서 고려 사신을 맞이하는 관리가 배치되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송 초기에는 A 향로의 항구인 등주를 이용하다가 송나라 중기와 후기에는 거란의 영향으로 A 향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C 향로를 통해 오는 고려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명주(현재의 영파)에 송의 관리가 상주하게 되었다.

대련과 등주를 연결하는 A 북선향로는 요하 남쪽 지역에 위치하며 묘도군도를 경유한다. A 북선향로는 대련에서 등주로 이어지는 경로로서 무역을 위한 주요 항로이자 송나라로 가는 지름길이고 안전한 항로길이다.

거란이 북선향로에 대해 강한 욕심을 가진 것이 강동 6주를 공략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였다고 본다.

### Ⅲ. 거란의 1~6차 침공의 배경

#### 1. 거란의 1~6차 침공 과정

다음은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6차<sup>36)</sup> 과정과 결과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도표 3> 거란의 6차 침공 과정과 결과<sup>37)</sup>

출 처	전 투 과 정	결 과	비 고
1차 침략 『高麗史』世家 卷第3, 成宗 12년 『遼史』卷15, 本紀第15, 聖宗6,	993년 거란이 봉산군 함락, 안용진을 공격하나 실패	①고려는 거란의 正朔을 사용 ②송과의 외교 단절	압록강 동쪽 280리 6주인 興化鎮·龍州·鐵州·通州·郭州·龜州의 영유권 확보.
2차 침략 『高麗史』世家 卷第4, 顯宗 元年 『高麗史節要』卷2 成宗 十二年 10월	1010년 12월 聖宗이 보병과 기병 40만명 거느리고 침략. 12월 6일 郭州함락, 8일 淸水江 진출, 10일	겨울철 눈이 얼흘 동안 내려 거란군이 많이 죽음. 거란 군사가 압록강에 많이 빠져 죽	거란이 고려의 신하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 (6주를 탈취하기 위한 명분)

36) 일반적으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3차로 알고 있으나, 거란의 침공이 6번 있었기에 6차 침공이라는 표현을 하겠다.

37) 신민식(2024), 165~166쪽.

『遼史』卷15,本紀第15,聖宗6, 『大元一統志』	肅州 함락. 거란의 대부대가 安定驛에 주둔.	음. 요주가 來遠城을 거쳐 遼城으로 도망감.	고려왕의 친조 요구. 서북계 6주 반환요구
3차 침략 『高麗史』世家卷第4,顯宗5년 『遼史』卷15,本紀第15,聖宗6,	1014년 10월에 거란의 蕭敵烈이 통주와 홍화진 공격.	고려 홍화진 장군 鄭神男과 별장 周演이 거란군을 패퇴시킴.	1015년 1월 거란이 압록강에 다리와 城을 설치. 홍화진과 통주, 용주를 침략.
4차 침략 『高麗史』世家卷第4,顯宗6년 『遼史』卷15,本紀第15,聖宗6	1015년 9월 거란 성종이 유성을 도통으로 임명. 서북계 6주 반환 요구.	거란 적군을 물리치고 700명 죽였으나 홍화진 대장군 정신용등 고려 장군 6명 전사. 거란이 영주성 공격하였으나 실패	1016년 정월 거란이 관주를 침략하여 군수품을 탈취하여 돌아감.
5차 침략 『高麗史』世家卷第4,顯宗8년 『遼史』卷15,本紀第15,聖宗6	1017년 5월 거란 성종은 蕭合卓을 도통으로 임명하여 침공. 8월에 압록강을 건너 홍화진 포위하고 9일간 공격	고려 장군 堅一, 洪光, 高義의 공격으로 거란 홍화진 침공이 실패	
6차 침략 『高麗史』世家卷第4,顯宗7년 『遼史』卷15,本紀第15,聖宗6, 개태7년	1018년 12월 거란은 소배압을 도통으로 임명하고 10만의 군사로 침략.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고 군사 20만 8천 명 동원 寧州에서 방어.	1. 강감찬이 홍화진에서 1만 2천 군사를 산곡에 매복시키고 홍화진 동쪽의 큰 내를 막은 뒤 터트려 거란군 패배시킴 2. 홍화진에서 패한 소배압이 경성으로 향하니 강민찬이 慈州 來口山까지 추격하여 패퇴시킴 3. 趙元이 馬灘에서 공격하여 1만여 수급을 베었다.	1019년 정월 소배압이 신은현에 이르니 (중략) 현종이 淸野戰術 펼침 漣州와 渭州에서 강감찬에게 패배. 2월 초하루 거란군사가 귀주를 지나자 강감찬등이 적을 대파하고 추격하여 石川을 지나 盤嶺까지 시체가 들을 덮었고 (중략) 살아 도망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다. 『遼史』에서 소배압이 茶河, 陀河의 두 개 강 사이에서 추격해 오는 고려군과 싸워서 패배.

## 2. 거란의 고려 침공 배경

### 1) 거란의 1차 침공은 고려와 송의 외교, 군사동맹을 막는 목적

992년, 거란의 소항덕이 침공하자 고려는 병마제정사를 여러 도에 보내 군대를 모으고, 2개월 후 거란군에 맞서는 삼군을 조직했다. 북계에서 거란군을 저지한 고려는 성종(成宗)의 지휘 아래 서경을 거쳐 안북부로 진군해 지원했다.

993년, 봉산군에서 열린 최초의 전투에서 고려는 거란군에 패배했다. 이에 성종은 안

북부에서 서경으로 후퇴했다. 이어진 전투인 안용진에서 고려는 거란에 승리를 하였다.<sup>38)</sup> 소항덕이 봉산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안용진에서 패배했지만 큰 인명피해가 있지도 않았는데 80만 대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서희와 협상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 라는 의문이 남는다.<sup>39)</sup> 1차 거란전쟁은 거란이 송나라와 고려의 외교 관계에 위협을 느끼며 이들의 외교 단절을 목표로 삼아 일으켰다. 그것은 거란의 군사력을 고려에게 보여주는 군사 시위로서 병력동원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거란은 송과 대치를 하고 전투를 계속하는 시점에 고려와 다시 전면적인 전쟁을 하기보다는 군사를 동원하는 군사 시위를 하였다고 본다. 군사 동원'은 외교 사절 파견과는 구별되는 '군사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다. 이는 상대 국가에 자국의 군사력을 인식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에도 육군이나 해군 기동 훈련 시 외국 군사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은 군사 기밀 공개가 아니라,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군사력 과시는 불필요한 전쟁을 예방하거나 자국의 외교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있다.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에서 보인 군사 권위정책은 바로 이러한 군사력 동원의 예이다. 소손녕이 80만 거란군을 이끌고 와서 외교 협상을 통해 고려로 하여금 송나라와의 외교를 중단하고 여진족을 정리하도록 한 것은 군사력을 동원한 전략적 시위였다.

군사력 동원이 유명한 예로는 1905년 빌헬름 2세의 군사정책이 있다. 그는 독일 전함을 타고 모로코의 탕헤르 항을 방문하여 프랑스에 대응했다. 이는 프랑스와의 전쟁 의도가 아닌 군사적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군사적 권위정책의 형태는 부분적 혹은 전면적 병력동원으로 나타난다.<sup>40)</sup>

중세 국제관계에서는 부분적 혹은 전면적 병력 동원을 통한 군사적 권위정책이 행해져, 단순한 외교 사절단의 파견을 넘어서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군사 권위정책은 자국의 권위를 상대 국가에 강력히 인식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국이 제시한 정책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군사 권위는 상대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거란이 군사를 동원하여 서희와 외교 협상을 통해 이는 고려가 송나라와의 외교를 중단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군사적 동맹을 차단하고자 하는 군사 권위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993년, 거란은 고려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얻은 후 송나라를 침략하여 1004년에는 송나라와 전연지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전연지맹 이후, 거란은 송나라에게 세폐(稅弊)를 요구하여 송은 결국 거란에게 50만 냥의 은을 세폐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sup>41)</sup> 이에 반해 거란은 고려에 송과 단교

38) 『高麗史』卷九十四 列傳 卷第七 諸臣

遜寧以蒙戡既還，久無回報，遂攻安戎鎮。中郎將大道秀·郎將庾方，與戰克之，遜寧不敢復進，遣人促降。

39) 최덕환,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85호, 한국역사연구회, 2012, 85쪽.

40) 한스 모겐소(2021), 244~245쪽.

41) 이근명, 「11세기 중반 송-거란의 접경 지역을 둘러싼 충돌과 외교 교섭」, 『중앙사론』, 47호, 중앙대



하하라는 외교적인 요구를 하면서 세폐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거란이 송과 고려에 상대하는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론으로 거란의 1차 고려 침공의 목적은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동맹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기에 거란은 군사 시위를 한 뒤에 바로 병력을 철수한 것이다.

## 2) 거란의 2~6차 침공의 목적과 과정

거란이 993년 여진을 축출하고 압록강 동쪽 280리의 영토를 장악한<sup>42)</sup> 대가로, 고려는 거란과의 친교를 맺고 송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외교적 협상에 동의했다. 거란의 993년 1차 침공 후에 고려가 송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지 못하게 되면서 거란이 송과 전쟁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송을 침공하여 승리함으로써 요나라 성종은 1004년 송나라와 전연지맹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송나라의 위협 없이 고려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거란은 993년 1차 침입 때와 달리 이후 2차부터 6차 침공에서는 외교적 협상 대신 전쟁을 선택했다. 그것은 강동 6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고려 서북계 6주 지역은 말을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는데, 이곳은 요하 동쪽의 지역으로 밀, 수수, 옥수수, 보리, 콩, 잡곡 등이 왕성하게 재배되어 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다. 즉, 이 지역은 대량으로 말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말 농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요하 근처의 갈대밭은 건초의 역할을 해주어 충분한 말의 먹이가 되어주었다.

거란은 여진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樞密使 아를사진(耶律斜軫)이 여진을 토벌하고 말 20여만 필을 다시 획득하여 물과 풀이 편리한 지역에 나누어 방목하였는데, 그 수효가 해마다 증가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을 해서 그 수효가 1백만에 달했다.<sup>43)</sup>

요하 주변의 초원지대는 말에게 편안한 먹이터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지역이었다. 따라서 거란은 여진으로부터 빼앗은 20만 필의 말과 주변국에서 세공으로 받은 말들이 번식한 100만 필의 말들을 위해 이 지역을 탐냈다. 이 지역은 요하 주변의 고려 서북계 6주 지역으로, 거란이 말을 키우기에 적합했다. 또한, 이곳은 말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콩, 수수, 옥수수와 같은 곡물 및 갈대 같은 건초가 풍부해, 고려에게는 전투마를 키우는 곡창지대로서 중요했다.

993년 1차 전쟁 이후 고려와 거란 간의 외교 조약에 의해 고려 서북계 6주가 고려에 넘어간 상황에서, 고려에서 1009년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다. 이 정변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와 그 집권 세력이 주도했으며, 송과 외교관계 복원을 지지했다. 강조와 그 세력들은 고려의 외교정책이 1차 전쟁 이후 일방적으로 송과 외교

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8, 222쪽.

42) 『遼史』 卷13 本紀13 聖宗4 統和 11年

春正月 丙午 高麗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鴨渚江東數百里地賜之.

43) 김위현외(2012), 556~559쪽.

단절을 하고 거란에 치중하는 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거란의 聖宗은 강조와 그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참전했다. 2차 전쟁에서 거란은 흥화진, 통주, 광주, 안주 서경 등에서 주요 전투를 벌였다. 전투 결과, 고려는 3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었고, 거란은 회군 시 19,500명의 전사자를 남겼다. 현종은 聖宗에게 표문을 올려 친조를 약속하며 피난 시간을 벌였고, 거란은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여 회군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가 송나라와 계속 외교, 군사동맹을 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거란이 고려와의 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음을 시사한다.<sup>44)</sup>

침공 당시 거란은 보병과 기병 40만 명으로 구성된 병력을 가졌고, 이에 대항하는 고려의 병력은 30만 명이였다.<sup>45)</sup> 고려의 방어 병력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거란은 2차 침입을 한 뒤에 송나라와의 외교를 시도한 강조만 처형하고는 후퇴했다.

그런데 2차 침입 이후에 3차 침공부터는 6주를 달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거란이 고려에 제시한다. 2차 침입 후, 거란은 고려에게 6주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것은 고려의 현종이 직접 와서 거란의 성종에게 조근하라는 외교적인 요구를 한다.

현종이 병으로 인해 2차 침입 시 약속한 조근(朝覲)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거란은 3차 전쟁을 일으키며 6주 영토를 되찾겠다고 선포했다.

거란은 송과 외교를 계속하는 고려의 이중 외교에 위협을 느껴 강주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한 뒤에<sup>46)</sup>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6주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고려의 현종이 거란으로 들어와 직접 조근하라는 무리한 외교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현종이 직접 거란으로 들어가 조근(朝覲)하는 것이 병으로 인해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거란은 이를 계기로 3차 전쟁을 일으키며 6주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3차 전쟁에서 거란의 명분으로 현종의 친조(親朝)를 명분으로 삼아 6성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거란은 현종이 거란에 직접 인사를 하고 예를 표하는 조근(朝覲)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조건으로 삼은 것은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 6주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하 근처의 강동 6주는 경제적,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송나라 역시 거란의 고려 침공이 6성을 차지하려는 거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sup>47)</sup> 거란은 3월과 7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6주를 거란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고려는 거란의 의도에 대외적인 외교적인 전략으로 칭신(稱臣)<sup>48)</sup>을 자처하겠다는 외교적인 문서를 보냈다. 계속해서 현종의 친조를 요구

44) 구산우,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 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제』74집, 부산경남사학회, 2010, 89~92쪽.

45) 高麗史節要 권3, 顯宗 원년 11월 辛卯 丁酉. 解圍, 更傳勅旨曰, “汝等慰安百姓而待之. 以二十萬兵屯于麟州南無老代, 以二十萬兵進至通州.” 契丹主移軍銅山下,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10월 丙午 刑部尙書崔士威爲統軍使, 率兵三十萬, 軍于通州, 以備契丹.

46) 최종석, 「현종 대 고려-거란 관계와 외교 의례」, 『동국사학』60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8쪽.

47) 최종석(2016), 93~94쪽.

48) 내정 간섭까지 받는 관계가 아닌 외교적인 예를 통해 거란을 받들겠다는 칭신으로 조선과 명나라와

한 거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6성(六城)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과 의도를 실행에 옮겼다.

3차 전쟁을 준비하며, 거란은 6주를 공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보주와 정주를 점령하고 거기에 각장을 배치했다. 3차 전쟁 후, 6주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고려는 6성의 반환을 요청하는 거란 사신을 억류하면서 4차 전쟁을 촉발했다.

4차 전쟁을 마친 후, 고려는 대거란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어 강경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송나라와의 외교를 복구하고 송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5차 전쟁은 흥화진에서만 짧은 기간 동안 전투가 일어났다.

6차 전쟁은 2차 전쟁과 비슷한 규모로, 병력이 15만 명 이상이었으며, 蕭排押가 실제 전투에 10만 명의 병력으로 참여했다. 제6차 전쟁 동안 거란의 피해는 엄청났으며, 귀주 전투에서 패한 후 도망치다 전사한 거란 병사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遼史』에 따르면 10만 병력 중 대다수가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여러 전쟁을 거친 후 고려는 요나라와 정면으로 맞서는 데 자신감을 얻어 1014년에 송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내 통교를 재개하려 했다.

1014년 10월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여 크게 패배했고, 1018년 12월에는 대규모 침략을 시도했으나 귀주 대첩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크게 패해 철수했다. 이에 거란은 무력으로 고려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거란의 2~6차 고려 원정은 고려가 강동 6주를 차지하여 강해질 위협을 제거하고, 동시에 6주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소손녕이 이끄는 1차 원정과는 달리 2~6차 전쟁은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다. 거란의 초기 전쟁과 후기 전쟁의 목적과 의도는 서로 달랐다. 문제는 전쟁의 목표가 된 6주가 요하 동쪽의 광활한 초원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압록강 이남의 좁은 지역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압록강 이남의 좁은 영토를 위해 거란이 큰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고려의 국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하 동쪽 초원지대를 빼앗으려 했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다.

대일 항쟁기에 쓰다 소우키지나 이케우치 히로시는 6주의 지명을 한반도로 한정하면서, 6주가 압록강 이남에 있다는 강동 6주설을 주장했다. 이는 제국주의 정책에 입각한 학설이었다.

결론으로 말하면 거란의 2~6차 고려 원정은 고려가 요하 수계(水系)에 있는 강동 6주를 차지함으로써 강성해질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고 동시에 6주의 경제적, 군사 전략적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

의 관계와는 다른 형태이다.

#### IV. 결론

거란의 2차 침공은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삼아 거란 성종이 직접 이끄는 40만 대군이 전쟁에 참전했다. 이 전쟁에서 거란의 공식 사망자 수는 19,5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2차 침공 후에 무리한 외교 조건으로 고려의 현종이 거란으로 들어와 거란의 성종에게 친조(親朝)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고려에 대한 보복으로 거란은 다시 6주를 요구하며 침공을 감행했다. 거란이 무리한 외교 조건을 명분으로 연속된 침공의 주된 목적은 6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전쟁의 비용과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6주 땅이 가진 가치 때문이었다. 거란은 6주의 획득이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거란이 전쟁해서 차지하고자 했던 6주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주가 한반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요하 주변 지역인 고려 서북계 지역인 6주인지에 대한 학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역사 지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경제 지리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지리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이에 따른 분쟁의 원인 및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알자스-로렌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 간의 분쟁 지역으로 유명하며, 이곳은 석탄, 철광, 칼륨이 풍부하고 포도 산지로 알려져 있다. 라인강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군사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령이 되기 전까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투가 잦았던 지역이다. 이처럼 경제적, 군사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거란과 고려 간의 분쟁 원인이 된 서북계 6주와 유사하다.

6주의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요소로 6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 철, 소금, 인삼(산삼)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든 현재든 식량과 소금은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철은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는 무기 생산에 필수적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해안 지역의 소금과 북방 지역의 동물 가죽, 곡물 등은 서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교역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sup>49)</sup>

삼국 시기부터 유명한 약초로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약초가 고려인삼[산삼]이다. 장중경(150~219)이 지은 『傷寒論』<sup>50)</sup>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인삼은 인체의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모든 질환에 쓸 수 있다. 그러한 고려인삼은 거란과 송나라 황실에서도 준비해야 할 비상 구급약으로 은 강동 6주 지역인 요양의 동쪽 산맥과 장백산에서 채취한 산삼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리고 말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말은 나라의 국력이 강

49) 김연성, 『동북아 고대교역과 명도전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3, 3쪽.

50) 『傷寒雜病論』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본은 전란 중에 유실되었고 장중경의 제자인 왕숙화가 『상한론』과 『금궤요략』으로 정리해 펴냈다.

한가 아니면 약한지를[國之強弱在馬]<sup>51)</sup>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한반도 압록강 이남 지역과는 달리 요하 수계에 있는 서북계 6주는 수수, 옥수수, 콩 재배에 좋다. 수수, 옥수수, 콩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전통적인 주식 작물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이들 작물 재배에 적합하며, 홍수와 습지에서의 내성이 우수하다.

청나라 시대에도 요양, 개평, 금현, 개원, 철령, 광녕, 녕원 등지에서 이들 작물의 재배가 활발했다. 청나라 말기, 요하 근처에서 재배된 말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대두는 영구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여진이 말을 기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은 요하 주변이며, 여기서 밀, 수수, 옥수수, 보리, 콩, 잡곡 등을 재배해 말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다. 여진은 송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말을 교역했으며, 거란의 팽창에 대응하여 송, 고려와의 유대를 강화하려 했다.

여진과 송의 무역에서 송태종은 하동, 섬서, 등주 등지에서 전투마를 매입했으며, 여진은 북선향로를 통해 등주까지 말을 운송했다. 북선향로는 요동반도 대련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산둥반도 등주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향로로, 약 120km의 직선거리를 2일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육로를 통한 말 무역은 여진에게 어렵다. 거리가 멀고 거란의 방해로 받기 때문이다. 반면, 요동반도에서 산둥반도의 등주까지 이어지는 북선향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송 진종(眞宗, 997~1022) 때 여진이 송나라에 말을 연간 1만 필이나 보내는 것<sup>52)</sup>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은 북선향로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거란 성종(聖宗, 982-1031)은 압록강에서 양육된 거란의 말들이 송의 전투마가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고 위협으로 느꼈다. 우수한 말들이 송으로 가는 것<sup>53)</sup>을 차단하면서 위협을 제거하고자 10년 동안 동북 방면 여진을 공략하는 정벌이 지속되었다.

거란의 성종은 동시에 고려가 송나라, 여진과 같이 외교 동맹, 군사동맹을 맺는 것에 관한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래서 993년 1차 침공 시 소손녕이 80만 대군의 군사적인 시위를 하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게 했다. 그 뒤에 1004년 거란이 송과 전쟁에서 이기고 송이 매년 비단과 금, 은을 제공하는 전연지맹(澶淵之盟)<sup>54)</sup>을 맺게되었다.

송과 고려의 군사동맹의 위협도 없어지고 또한 송을 제압한뒤에 거란은 6주에 대한 경제적, 군사 전략적인 가치로 고려를 침공하게 되었다. 1010년에 거란이 발발시킨 2차 전쟁은 993년의 1차 고려-거란 전쟁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는 고려가 서북계 6주를 차지하면서 국력이 신장되는 것에 대한 거란의 부담감과 동시에,

51) 金渭顯(1981), 171쪽.

52) 최덕환(2012), 275~281쪽.

53) 최덕환(2012), 275~281쪽.

54) 중국 송나라가 거란에 패한 뒤인 1004년에 요나라 성종(聖宗)과 송의 진종(眞宗)이 전주(澶州)에서 체결한 강화조약이다.

서북계 6주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이 지역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수산물이 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이점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서북계 6주는 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여진족이 송나라에 말을 대량으로 수출하기에 좋은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여진은 항해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다.<sup>55)</sup> 중세기 때 여진은 항해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풍랑의 위험이 없는 북선향로를 이용하면 요동반도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쉽게 산동반도의 등주로 갈수 있다.

요동반도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산동반도로 이어지는 북선 향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고려의 서북계에서 송나라로 가는 직향로의 입구에 위치하며 거란의 상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서북계 6주는 이러한 요동반도 길목에 위치해 있어 경제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고 군사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 때문에 거란은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고려 서북계 남쪽에 위치한 발해만은 환 발해만이라 불리며, 이는 동그란 고리 모양의 'C자형'을 가진 요동만, 발해만, 래주만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환 발해만은 요동만을 통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중원과의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환 발해만의 'C자형' 중 요동만 연안을 따라 내려가면, 요동반도의 대련에서 현재 봉래인 등주 사이에 묘도군도가 위치한다. 이곳은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해상통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중세기에 항해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도군도를 통한 항해 루트는 요동에서 산동으로 가는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이 항해 루트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해상통로가 특히 중요했는데, 이는 육상 교통로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교통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해상통로는 주변 지역의 경제적, 군사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간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축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이 향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통 경로로,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요동반도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산동반도로 이어지는 향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이 향로는 고려의 서북계에서 송나라로 가는 직향로의 입구에 위치하며, 거란의 상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강동 6주는 이러한 요동반도 길목에 위치해 있어 경제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고 군사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 때문에 거란은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도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거란도 같은 이유로 2차부터 6차 전쟁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는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거란은 환 발해만에 고려가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

55) 金渭顯(1981), 4쪽.

결국 거란은 강동 6주를 차지하며 '경제적,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고려를 침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원전)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史記』  
『盛京疆域考』  
『遼史』  
『續資治通鑑長編』

### (단행본)

김위현 외, 『국역遼史』 下, 단국대학교, 2012.  
김태웅 외, 『중학교 역사 2』, 미래엔, 2019,  
박근철 외, 『중학교 역사 부도』, 지학사, 2018.  
이병인 외, 『고등학교 역사부도』, 비상, 2017.  
이우태 외, 『중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 2017.  
한스 모겐소, 이호재, 엄태암 옮김, 『국가 간의 정치』, 김영사, 2021.  
杨强, 『北洋之利-古代渤海区域的海洋经济』, 江西高校出版社, 2005.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고려인삼』, 천일인쇄소, 1993.

### (논문)

구산우,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 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제』74집, 부산경남사학회, 2010,  
곽이성, 「고려인삼의 유래 및 효능의 서지학적 고찰」, 인삼문화, 2019.  
김연성, 『동북아 고대교역과 명도전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3.  
김선민, 「만주족과 인삼」, 인삼문화, 2019.  
남주성, 「서희 개척 8주의 위치에 대한 재고찰」, 『압록(鴨綠)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남창희, 이인숙, 「환발해만 제해권과 고대 동북아 국제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15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신민식, 「고려 서북계 지리적 위치에 관한 융합적 고찰」, 인하대 융합고고학 박사 논문, 2024.  
이근명, 「11세기 중반 송-거란의 접경 지역을 둘러싼 충돌과 외교 교섭」, 『중앙사론』, 47호,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8  
최덕환,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85호, 한국역사연구회, 2012  
최종석, 「현종 대 고려-거란 관계와 외교 의례」, 『동국사학』60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허우범, 『대동지지』 ‘평안도 청북’의 위치로 살펴본 19세기 조선의 서북계,

『인문과학연구』69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허우범, 「위화도의 위치 재고찰」, 『인문과학연구』62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 **【Abstract】**

# Background of the Khitan invasion of Goryeo and the Gangdong Six Counties

Shin, Min shik

Dept. of Interdisciplinary Archaeology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There ar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ources suggesting two different locations for the Gangdong Six Counti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near the water system of the Liao River in Manchuria. Due to the presence of literature supporting both the Manchurian theory and the Korean Peninsula theory, determining the exact location is challenging.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economic and military value of the Gangdong Six Counties. By analyzing the economic and military importance of the areas proposed in these competing theories, we aim to transcend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straints.

The fundamental reason the Khitan sought to seize the Six Counties through wars from the second to the sixth campaign lies in the region's economic value and military strategic importance. Despite the heavy losses and war costs, the Khitan continued their invasions up to the sixth campaign to gain control over this territory. This persistence underscores that the land held significant value, justifying the substantial costs and casualties incurred. Hence, the Khitan invaded Goryeo six times, driven by the goal of acquiring the Gangdong Six Counties due to their economic and military strategic significance.

The sea route from the Liaodong Peninsula through the Miaodao Archipelago to the Shandong Peninsula i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mportant. This route is located at the entrance to the direct passage from Goryeo's northwestern border to the Song Dynasty and is also a crucial path to the Khitan's capital.

The Gangdong Six Counties are situated at this strategic point on the Liaodong Peninsula, making them economically and geographically significant and of great military strategic value. For this reason, the Khitan made several attempts to seize this area through multiple wars. The wars between Goguryeo and the Tang Dynasty were also fought over this region, and the Khitan, for the same reasons, continued to wage wars from the second to the sixth campaign.

As the nation controlling this area grew stronger, the Khitan waged war to prevent Goryeo from settling in the area around the Bohai Sea. Ultimately, it can be seen that the Khitan invaded Goryeo to seize the Gangdong Six Counties and secure thi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strategic stronghold.

**【Keywords】**

northwestern border of Goryeo, Six States of Gangdong, Guiju, Cheolju, Tongju, Yalu River, horse market, Myodo Islands